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상황은 용인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느티나무도서관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처음 느티나무도서관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뒤, 도와 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전 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 아닙니까?

“느티나무도서관에 경고” 운운한 용인시의 보도자료는 이를 확인시켜 준 것이며, 정치인들간의 알력과 힘겨루기에 민간 도서관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티나무도서관이 민간 도서관이 정치 알력에 희생된 사례로 대한민국 도서관 역사에 남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할 것 없이 민간에서 애써온 모든 도서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경기도와 용인시가 1:9 비율로 매칭해서 1억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척 반가웠지만 솔직히 여태 경기도와 용인시가 3:7로 5000만 원씩 주다가 그렇게 올려준다니 과연 가능할까 믿기지 않는 마음도 컸습니다.

금액이 문제인지, 시도 매칭 비율이 문제인지, 아니면 도서관이 국회의원에게 공간을 빌려줘서인지, 왜 우리 도서관 예산이 잘려야 했는지 진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산을 세우고 승인하는지는 알겠습니다.

2022년 일 년 동안 경기도·용인시 행정부에서 긴 시간 조율하고 합의한 과정들은, 정치인들의 입김에 허망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서관 예산을 자르기 전에 금액이든 매칭 비율이든 뭐든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조정하고 협의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 심의에서라도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와 용인시 도서관정책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예산을 다시 책정, 협의, 승인해 주십시오.**

느티나무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에 참여해 준 분들을 비롯해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분께 호소합니다. 저희의 각오와 주장을 널리 알려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2023년 3월 17일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일동